

광주교육감, 학생·학부모 온오프 소통

100여명 참여 SNS·현장 토론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확대
교사들 업무부담 경감 등 요구
“시민 목소리 정책 반영 노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광주시교육감과 온·오프로 만나다' 100인 100분 토론회 행사 참석자들과 광주교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제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 학부모와 온·오프 라인 소통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 학부모들은 이 교육감에게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 (광탈페) 확대를 건의했다.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고교학점제 예로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27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에 따르면 '광주시교육감과 온·오프로 만나다' 100인 100분 토론회가 최근 광주직산고 하이브리드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온·오프 라인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광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전영상 건의, SNS, 현장 토론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주교육과 관련한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광주대동고 김민우 학생회장은 "광주학생탈렌트페스티벌(광탈페), 문화배상 등 광주시교육청의 다양성 교육이 학생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도 '365-스터디룸',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광탈페' 등 사업에 크게 호응하며 참여기회의 폭을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많은 학생·학부모·시민들께서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해 좋게

평가해주고 계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연제초에 다니는 자녀를 둔 노혜은씨는 "최근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광주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은 우리에게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시 힘을 합쳐 어울림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주고 신원재 교사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교 현장은 다교과·다학년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수업 시수 조정과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교육감은 "교사의 부담을 덜어서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학교인 '빛고을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대학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폭넓은 협력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부담이 되는 방과후, 돌봄, 마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도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올해는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기치 아래 교육활동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2024년에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라는 기조에 따라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으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과 글로벌 기반의 세계 교육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 김진구 단장은 "광주교육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목소리가 광주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학군단 선서식.

광주대 학군단 운영 최고등급

국방부 전국 115개 대학 평가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국방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7일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주대학교 1000점 만점에서 930점 이상을 받아 광주·전남 지역 학군단 운영 대학교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을 받았다.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는 국방부에서 육·공·군 교군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115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학군단 지원, 우수후보생 확보, 교육 훈련 지원, 교육시설 환경 등 대학교

의 학군단 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여 학군단 존폐 및 후보생 정원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

광주대학교는 입단하는 후보생들에게 장학금 전액 지급 및 국내외 탐방, 드론 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우수 후보생 모집과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대학교 학군단은 2012년 창설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12명(남자 186명·여자 26명)의 학군장교(ROTC)를 배출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국방부 평가 및 육군 학군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정예 초급장교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학교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협의회 발대식 장면.

조선대 제약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유치 나서

지원 협의회 발대식 개최

조선대학교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해 나섰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약화대학은 지난 24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천연물약품원료플랜트, (제)백신글로벌산업허브개발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한풍제약, (주)렉스팜텍, (주)터온테라퓨틱스, (주)아리바이오에 이치엔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선대는 제약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유치·운영을 통해 지역(글로벌) 맞춤형 제약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원 협의회 발대식 개최

조선대학교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특성화대학원 유치를 위해 나섰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에 따르면 약화대학은 지난 24일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천연물약품원료플랜트, (제)백신글로벌산업허브개발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한풍제약, (주)렉스팜텍, (주)터온테라퓨틱스, (주)아리바이오에 이치엔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선대는 제약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유치·운영을 통해 지역(글로벌) 맞춤형 제약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다문화학생 28명 '엄마나라 배우기' 베트남 탐방

언어 배우고 문화 이해 교류활동

전남교육청이 다문화학생 '엄마나라 배우기 탐방'을 운영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마나라 배우기 탐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베트남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언어·역사를 배우고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체험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베트남 호치민시 탐방은 지난 6월 전남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호치민시교육청, 반랑대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와의 교육 교류 활동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참여 학생들은 반랑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와 함께 3일 동안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의 전통 모자, 음식, 놀이, 동화 등 베트남 문화를 익히는 시간을 보냈다. 또 호치민시 관내 호



다문화학생 '엄마나라 배우기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베트남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아르 중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베트남 학생들과 양국의 민속놀이를 함께 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학생 교류 활동을 했다.

이러 방문한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는 베트남

어와 영어 수업을 함께 하며 이종언어 강점 개발에 대한 동기를 갖고, 글로벌이퀄(GloNaCal) 미래 리더로서 성장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라남도 JeollaNamp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사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사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사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전남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사랑의열매